

청소년 생활 공간에 관한 심리·사회적 고찰

이명숙 · 이재창

한국청소년연구원 연세대 심리학과

청소년에게 보다 적합한 환경을 창출,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접촉해 온 또는 선호하는 물리적 환경의 공간적 요인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공간접촉 또는 선호와 관련된 비공간적 요인들도 동시에 고려하여 환경관련 요인과 인간관련 요인이 어떻게 상호연관되어 있는지에 관한 이해를 보다 깊게 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첫 시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초기 및 중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되거나 자주 가본 장소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장소들은 청소년들의 어떤 환경동기들(environmental needs)을 충족시켜 주는지를 알아 보았다. 본 연구에서 다룬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첫째, 청소년이 경험해 온 생활공간 중에서 의미있다고 지각되는 공간의 종류를 유형별로 파악하고, 그러한 공간에 대해 청소년 자신이 부여하는 주관적 의미 또는 동기를 분석한다. 둘째, 현재까지는 자주 접해 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접해 보고 싶은 공간의 종류를 유형별로 파악하고 그러한 환경에 대해 청소년들이 부여하는 주관적 의미 또는 동기를 분석한다. 셋째, 지역사회내 특정 여가 공간에 대한 청소년의 이용빈도, 이용비용 등 공간 접촉실태를 조사한다. 넷째,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의 전용시설'의 유형별 설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한다. 끝으로, 이상에서 조사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청소년 전용공간의 양적 확충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청소년육성법 개정방향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인간-환경 상호작용

인간이 환경에 영향 미치는 것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인간-환경 상호관련성의 규명에 있어서 행동 장면(behavior setting)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환경의 요구에 따른 인간행동의 원리를 찾고자 한다. 즉, 인간행동이 개인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특정 상황에 의해 설정되는 행동규범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일종의 '요구된 행동(necessary action)'으로 보는 수동적 인간관에 기초한 관점이다.

이에 반해 최근의 환경심리학 연구에서는 Stokols의 '인간-환경 최적화(optimization)', Kaplan의 '상용성(compatibility)', Michelson의 '일치성(congruence)' 등의 개념들을 중심으로 인간-환경 상호작용에서 인간의 의도성, 목적성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Stokols (1977)의 '행동-환경 최적화' 개념은 개인의 목적 및 계획의 성취와, 욕구의 만족을 최대화시키는 것으로서 개인의 요구에 대한 환경의 적합성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그는 동기적으로 중요한 욕구(need)의 충족을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좌절시키는 환경적 요인들을 강조한다.

Kaplan (1983)은 인간-환경 상용성 (compatibility) 개념에 기초해서, 개인 및 그들의 관심을 지지하는 환경창출에 있어 어떤 요인들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준다. 부합성이 높은 환경은 지지성 (supportiveness) 과 회복성 (restorativeness) 이 높은 환경이다. 지원적 환경 (supportive environment) 은 중요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 개인이 통제를 가할 수 있는 환경으로서 여기에서는 인간의 선택, 의도를 중요하게 간주한다. 회복적 환경 (restorative environment) 은 일상생활에서의 분산과 강압으로부터 벗어나 개인의 잠재력을 회복시키는 환경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휴양, 시골의 오두막집 생활 등이 회복성이 높은 곳에 속한다.

Michelson (1977)에 의하면, 인공적 환경의 공간적 특성이 개인이 원하는 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때 이를 일치상태 (state of congruence) 라 하고, 공간적 특성이 활동의 실시를 곤란하게 할 때는 이를 불일치상태 (state of incongruence) 라고 한다. 또한, 일치상태를 두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정신적 일치 (mental congruence) 와 경험적 일치 (experiential congruence) 가 그것이다. 정신적 일치는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순조롭게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지칭한다. 경험적 일치는 일단 개인이 실제로 특정의 환경에 노출되어 본 후에 그러한 환경에서 그러한 활동이 받아들여지는 실제적 정도를 의미한다.

Michelson 은 특히 일상생활상의 행동패턴을 강조하면서, 공간적 요인 자체보다는 그러한 요인들의 행동적 산물이 일치성 개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특정 환경의 측정가능한 수치들(예 : 수용능력, 음향, 장비, 거리 등)이 어떤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를 재는 등의 기존 연구들이 의존해 온 개념적, 방법론적 틀로서는 요인들간의 관계성에 내재된 과정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을 외부 자극에 대한 수동적 반응자이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존재로 보

는 최근 심리학의 동향과 부합한다. 예를 들면, 발달, 성격, 사회, 임상 등의 심리학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통제' 개념, '무기력' 개념 등이 개인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목적지향적, 의도적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인간적인 환경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인간-환경간의 정신적 일치와 경험적 일치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접하는 개인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서 개인에게 의미 있는 환경적 상황들 또는 이러한 상황들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직접 기술하게 함으로써 특정 상황에서의 행동패턴 또는 동기패턴을 분석하는 것이다. 개인이 선호하는 활동은 그러한 활동이 발생하는 환경적 상황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환경선호는 개인의 지속적인 속성이면서, 행동의 일관성을 볼 수 있는 상황의 유형들을 확인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선호패턴과 동기패턴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청소년의 심리적 환경과 일상생활과의 관계

물리적 환경은 아동이나 청소년의 사회적 성격 발달에 단순히 중립적인 맥락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환경은 아동의 복지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성숙된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심리적 환경이란 이 물리적인 환경적 맥락이 어떻게 개인의 사회적인 성장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두면서 개인이 자신의 환경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지적, 정서적 반응이나 지식을 총칭하는 것이다.

환경과의 경험을 통해서 각 개인은 어떤 장소들이 있는가에 대한 지식을 형성해가며 그 장소들에 대한 태도를 이루어간다. 이러한 환경에 대한 지식이나 감정은 아주 주관적이기도 한데, 그것은 개인의 성향이나 경험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인간과 환경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간이 특정 환경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 하는 환경인지 (envi-

ronmental cognition)의 문제와 특정환경에서 어떤 행동 형태가 나타나는가 하는 환경-행동 상응성(environment-behavior compatibility)의 문제 그리고 특정 환경의 분포가 각 성원들의 사회행동 특히 상호작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그중에서 '환경과 행동의 상응성' 개념에 기초한 발달심리학 연구에서는 아동이 그들의 활동영역과 그들에게서 사용가능한 물리적, 사회적 자원들을 어떻게 표상하는가, 그리고 어떤 욕구들을 자신들의 환경에서 추구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나가며 어떤 자원을 찾는가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활동영역이란 그들의 성, 연령, 생활환경 등에 따라 다르며, 또한 집이나 이웃과 같은 국지적인 영역에서 집 바깥의 거리나 지역과 같은 확장된 장소로 연결된다. 십대 연령의 청소년들에 의해 지각되어지고 사용되는 도시의 장소들은 어린 연령의 아동의 경우보다 훨씬 복잡한 단위일 것이다. 다시 말해, 여자보다는 남자가, 어린 아동보다는 나이 든 청소년이, 사회경제적 신분이 낮은 가정 출신의 청소년보다는 사회경제적 신분이 높은 가정의 청소년이 보다 다양하고 세분화된 활동 영역들을 지각하고 접촉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환경지각 및 경험에 있어서의 성별 특성 차이는 사회화에 의해 이미 청소년기 이전에 고정된 성유형(sex-typing)을 반영하는 것이고, 연령별 특성 차이는 연령증가에 따른 인지적 기술(cognitive skill)의 성장, 환경에 관한 학습, 개인적 공간 이동성의 증가 등 수많은 발달적 변화 중의 일부를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경제적 신분별로 나타나는 환경경험상의 차이는 부모 및 기타 준거집단의 가치관, 생활양식 등에 의한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방 법

많은 연구자들은 인간에게 미치는 환경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사람들이 일상적 활동을 수행하는 생활

현장에서의 인간-환경 상호관련성을 탐구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해오고 있다. 하지만 일상적 행동이 수행되는 상황을 측정하는 방법론적 문제 때문에 그러한 연구를 제대로 시도해 보지 못한 형편에 있다.

이러한 측정방법론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보기 위한 예비적 시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방법으로 응답자의 반응을 수집하였다.

자유회상 자기기입법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설문 조사 방식에서 탈피하여,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응답자로부터 신뢰로운 자료를 이끌어내기 위해 주된 설문방식으로서 '자유회상 자기기입법'(free-recall self-recording)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응답방식은 특정질문이 제시되었을 때 그에 대한 답을 응답자 스스로가 떠올려서 자신이 직접 공간에 기입하는 방법을 뜻한다.

설문방식으로서 특히 자유회상식 응답을 요구한 연구자의 의도는 위에서 지적한 방법론적 타당성의 확보 이외에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내용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응답자로부터 얻은 직접적인 원자료에 기초한 자료해석이 방법론적으로 바람직하나, 청소년들에게 의미있는 공간의 종류 및 공간접촉동기 등에 관한 전반적인 패턴 분석을 위해서는 청소년 각자의 개별적 자유응답자료를 기존의 공간관련연구 및 동기이론들에 기초하여 원자료를 유목화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추론적 분석이 불가피하였다.

그런즉,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Kaplan, R., 1977; Bunting & Dousins, 1985)에서 수 차례의 체계적인 예비조사를 거쳐 선정된 청소년 접촉공간 유형 및 활동 동기차원들에 기초해서 자유응답란(elicitation list)에서 응답자가 자신의 일생생활공간 중에서 의미있고 두드러지는 공간이라고 기입한 공간들과 공간접촉동기들을 유목화하여 청소년집단별로 공간유형-접촉동기간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재인 자기기입법

청소년의 의식구조, 생활실태, 공간접촉경험등에 관한 기존의 조사연구들은 연구자가 임의로 선택한 특정 분야의 활동, 태도 또는 공간들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응답자에게 제시하고 관련사항을 여러 개의 선택지들(options)중에서 고르게 하는 '재인 자기기입법(recognition self-recording)'을 사용하여 왔다. 이러한 설문 방식은 응답시간을 단축시켜 주고 자료처리를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응답자의 사고를 특정분야에정향(orientation)시키고 제시된 선택지 중에 적절한 답이 없을지라도 그중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하는 응답의 강제성을 내포하는 단점이 있어, 인간 행동을 결정하는 심리내부의 심층적 동기를 파악하기에는 부적합한 방식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 특히 사회적 선호도가 높은 문항에 대해서는 규범적, 도덕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선택지를 고르는 식으로 반응의 편파성을 내포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부가적인 방식으로 '재인 자기기입법'을 사용하여, 청소년의 생활공간이용에 관한 기존의 실태조사연구 및 정부의 청소년정책부서 등에서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할 청소년 여가공간으로 제시하곤 하는 특정의 근린 여가공간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촉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자유회상식 응답방식에서 도출된 청소년 여가공간의 종류 및 빈도와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설문에 포함된 여가공간들로는, 전자오락실, 분식집, 독서실/도서관, 탁구장, 영화관, 공원, 만화가게, 제과점, 취미교실, 롤러스케이트장, 고궁/박물관, 음악다방/카페, 디스코장, 햄버거하우스, 스케이트장, 당구장, 수영장, 농구/배구장, 볼링장, 야구/축구장, 배드민턴, 테니스장, 여학실, 컴퓨터교육실 등이다.

각 공간들에 대해서는 이용경험유무, 이용빈도, 1회 이용비용, 비용이 비싼 정도의 지각 등을 선택지들 중에서 고르도록 하였다.

본 조사의 표집대상으로 청소년집단의 선정시에 기준이 된 개인 변인으로는 사회경제적 신분, 성, 연령등이 포함되었다.

사회경제적 신분 요인에서는 강남지역 학생, 도봉지역 학생, 근로청소년 등 3수준을 선정하였고, 성 요인에서는 남, 여 등 2수준, 연령 요인에서는 중학교 2년생(13세), 고등학교 1년생(15세) 등 2수준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총12개(3×2×2=12) 집단 각각에 대해 50명 씩의 청소년을 조사대상자로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을 실시하였다. 총 600명에 대해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나 실제 자료 분석에 포함된 응답자수는 583명이었다.

조사가 실시된 기간은 88.11.5~11.25이며, 연구의 예비적 성격으로 인해 전국 단위 표집을 하지 못하고 조사실시 지역을 서울지역에 한정시켰다.

결 과

(1) 청소년의 생활공간 접촉패턴

1)접촉공간 목록(experienced space repertoire)

청소년들이 매일 생활하는 장소들 및 자주 가는 장소들을 생각나는 대로 적게 한 '자유회상(free-re-all)'설문에 대한 응답으로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접촉하는 것으로 드러난 공간 유형은 편의 공간으로서 '음식점, 문방구' 등 편의공간 목록(space repertoire)들에 대한 회상 응답수가 전체 응답수의 35%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많이 회상된 공간 유형은 시내개방공간(10%)이었고 다음으로는 가정공간(10%), 오락공간(9%), 체육공간(8%), 학습공간(7%), 문화공간(7%), 유흥공간(7%), 종교공간(3%), 자연공간(2%), 정치경제공간(0.9%), 숙박공간(0.2%)등의 순으로 총 12개 유형 55종의 공간 목록들이 회상되었다.

이러한 공간들을 접촉한 청소년들의 경험정도에 따라 구분하면, "매우 많이 경험"(전체응답자의

31% 이상)해본 공간으로는, 문화공간으로 영화관/소극장, 오락공간으로 전자오락실, 만화가게, 편의공간으로 음식점, 분방구/선물의 집, 백화점/쇼핑센터, 가게, 가정공간으로 친구집이 있으며 “많이 경험”(21-30%)해본 공간으로는, 학습공간으로 독서실/도서관, 종교공간으로 교회/성당/절, 유흥공간으로 카페/다방, 편의공간으로 슈퍼마켓/시장, 서점, 자연공간으로 산이 있고, “보통 경험”(11-20%)해본 공간으로는, 학습공간으로 학교/교실, 학원, 체육공간으로 탁구장, 롤러스케이팅장, 유흥공간으로 레스토랑, 편의공간으로 화장실, 가정공간으로 우리집, 친척집, 시내개방공간으로 놀이터, 시내거리, 정치경제공간으로 공장이 있고, “조금 경험”(6-10%)해본 공간으로는, 문화공간으로 취미교실, 체육공간으로 당구장, 운동장/체육관, 유흥공간으로 술집, 편의공간으로 제과점, 목욕탕, 미용실/이발소, 시내개방공간으로 광장, 전철역/버스정류장이 있고, “매우 조금 경험”(5% 이하)해본 공간으로는, 학습공간으로 컴퓨터교육실, 문화공간으로 고궁/박물관, 방송국, 씨클룸, 체육공간으로 스케이트장, 수영장, 농구/배구장, 볼링장, 야구/축구장, 테니스장, 유흥공간으로 디스코장, 포장마차, 편의공간으로 은행, 병원, 공중전화, 우체국, 시내개방공간으로 다리/뚝방, 남산/약수터, 뒷골목, 숙박공간으로 여관 등이 있다.

학생 청소년과 근로 청소년은 생활패턴, 주변 생활환경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들이 접촉해 온 공간유형도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집단을 비교해 볼 때 학생청소년과 근로청소년이 공통적으로 많이 경험해본 공간은, 공원, 독서실/도서관, 전자오락실, 만화가게, 카페/다방, 레스토랑, 탁구장, 당구장, 롤러스케이팅장, 시내거리, 전철역/버스정류장, 친구집, 친척집 등이다.

두 집단간의 상이점으로서, 학생청소년들은 도서관/독서실 등 학습공간, 친구집, 공원, 각종 구매시설 등에 대한 접촉도는 높는데 비해 문화공간, 체육공간, 자연공간 등 전전 여가공간들에 대한 접촉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청소

년의 생활패턴이 과도하게 학습에 치우쳐 있고 학습활동 외의 시간은 친구집, 공원, 전자오락실, 만화가게 정도를 이용하는 식으로 매우 단조로운 생활을 해나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에 반해, 근로청소년은 문화공간, 체육공간, 유흥공간, 시내개방공간, 자연공간 등 여가공간에 대한 접촉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특히 학생청소년에 비해 영화관/소극장, 고궁/박물관, 롤러스케이팅장, 카페/다방, 술집, 산/바다 등에 대한 접촉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청소년은 학습요구가 없고 이들의 많은 수가 이혼청소년이므로 그들의 생활에 대한 가정의 통제가 약한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 공간접촉동기 목록

(experienced motive repertoire)

상기한 접촉공간들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지’를 묻는 설문에 대한 자유회상식 응답에서, 청소년들이 생활공간을 접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추구하는 동기유형으로 드러난 것은 실용성 동기로서 ‘물품구입, 먹기 위해’ 등 실용성 동기목록들에 대한 회상 응답수가 전체 응답수의 23%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많이 회상된 동기 유형은 평온/휴식 추구 동기(21%)이었고, 다음으로 유희동기(17%), 친애동기(16%), 성취동기(9%), 자극추구동기(9%), 기타(4%), 자연추구동기(0.4%) 등의 순으로 총 8개 유형, 47종의 동기목록들이 회상되었다.

청소년들이 이러한 동기들을 추구하는 정도에 따라 구분하면, “매우 많이 추구”(전체 응답자의 31% 이상)하는 동기들은 성취동기로 ‘새 지식/기술습득하기 위해’, 친애동기로 ‘친구를 만나려고’, 평온/휴식동기로 ‘스트레스/기분전환하기 위해’, 실용성동기로 ‘물품 구입하기 위해, 먹기 위해’, 유희동기로 ‘재미있어서’ 등이 있다.

“보통추구”(11-20%)하는 동기는 친애동기로 ‘가족과 함께 있으려고’, 자극추구동기로 ‘체력단련을 위해, 공연물(영화, 비디오, 음악 등)을 감상하기

위해', 평온/휴식동기로 '마음이 편해서', 실용성동기로 'eyeshopping 하러', 유희동기로 '즐거워서, 좋아서' 등이 있다.

"조금 추구"(6-10%)하는 동기로는 평온/휴식동기로 '자유로워서, 생각을 정리하려고, 휴식하려고', 기타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등이 있다.

"매우 조금 추구"(5% 이하)하는 동기로는 성취동기로 '일을 하기 위해서', 친애동기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복적거리는 게 좋아서', 자극추구동기로 '만화책을 보기 위해, 심심하기 때문에, 취미가 있어서, 전자오락을 하려고, 전시품을 감상하려고, 그림을 그리려고, 경기 관람하려고', 평온/휴식동기로 '분위기가 좋아서, 감동적/행복감을 느끼게 하므로, 상쾌해서, 자기만성이 되므로, 피로회복이 되므로, 종교생활을 하기 위해', 실용성동기로 '술 담배를 할 수 있어서, 생리적 작용 때문에,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심부름으로, 아파서, 돈을 타기 위해서', 유희동기로 '단순히 놀기 위해, 관심/흥미가 있어서, 놀이기구가 있어서, 기타로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자주 가던 곳이라서, 추억거리가 되므로' 등이 나왔다.

학생청소년집단과 근로청소년집단의 공간접촉 동기를 비교해 보면,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기저동기로서 '친구와 만나기 위해, 스트레스 해소/기분전환위해' 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그 외에도 '새 지식/기술습득을 위해, 공연물 감상을 위해, 마음이 편해서, 물품구입 위해, 먹기 위해, eyeshopping 하러, 재미있어서/즐거워서, 시간보내려고' 등이 포함된다.

두 집단간의 상이한 점은 학생청소년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만날 수 있어,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어' 등 사회성에 기초를 둔 친애동기에 의한 생활공간접촉이 많은 데 반해, 근로청소년은 '스트레스 해소/기분전환을 위해, 마음이 편해서' 등 심리내적 긴장의 해소에 기초를 둔 평온휴식 동기에 의한 생활공간접촉이 많은 경향성을 보

인다.

따라서 청소년전용공간에서 제공하는 각종 청소년 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학교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여러 명이 동시에 참여하는 집단 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이 보다 그들의 욕구 충족에 효과적일 것이며,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격렬한 운동 또는 유희한 오락성 프로그램이 그들의 욕구 충족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각종 교육활동 및 서비스활동들이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말하자면 우리 신체가 건강하게 발달하려면 다양한 영양소를 적절히 섭취해야 하는데도, 어린 아이일수록 우선 입맛(식욕구)에 당기는 음식만을 선호하는 편식 습관을 스스로 버리지 못한다. 구체적인 예로서, 비만이라는 당분이 많은 음식물을 피해야 비만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길들여진 입맛(식욕구)에 따라 단 음식만을 골라 먹기 때문에 스스로는 건강한 신체 발달을 성취하기가 매우 어렵다.

인간의 정신적 발달에도 이와 유사한 원리가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아직 판단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교육내용 및 활동내용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그들의 정신적/정서적 편식을 조장할 가능성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문제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청소년의 생활공간 선호패턴

1) 선호공간 목록(preferred space repertoire)

청소년들이 '가고 싶은 장소이지만 주위에 있지 않거나 돈이 많이 들어서 가지 못한 곳'으로 자유회상한 응답으로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공간 유형으로 드러난 것은 해외공간으로서 '해외

여행, 디즈니 랜드' 등 편익공간 목록(space repertoire)들에 대한 회상 응답수가 전체 응답수의 19%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많이 회상된 공간 유형은 문화 공간(15%)이었고, 다음으로는 자연공간(14%), 유희공간(12%), 체육공간(11%), 상상의 공간(6%), 학습공간(6%), 편익공간(5%), 시내개방공간(5%), 정치경제공간(3%), 오락공간(2%), 가정공간(2%), 숙박공간(1%), 종교공간(0.5%), 기타(1%) 등의 순으로 총 15개 유형, 90종의 공간목록들이 회상되었다.

이러한 공간들을 청소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정도에 따라 구분하면, "매우 많이 선호"(전체응답자의 31% 이상)하는 공간으로는, 해외공간으로 '해외여행'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전체의 57%에 달한다.

"많이선호"(21~30%)하는 공간으로는, 문화공간으로 영화관/소극장, 유희공간으로 디스코텍 등이 있다.

"보통 선호"(11~20%)하는 공간으로는, 유희공간으로 카페/다방, 시내개방공간으로 공원, 자연공간으로 전국여행, 산/들, 바다, 해외공간으로 디즈니 랜드, 공산국가 등을 들었다.

"조금 선호"(6~10%)하는 공간으로는, 학습공간으로 대학 캠퍼스, 문화공간으로 방송국, 공연장, 체육공간으로 당구장, 수영장, 스키장, 유희공간으로 레스토랑, 상상의 공간으로 우주여행, 미지의 세계, 하늘나라/지옥 등이 있다.

"매우 조금 선호"(5% 이하)하는 공간으로는 학습공간으로 컴퓨터학원, 청소년상담소, 과학기술원, 과학실험실, 남자(여자)학교, 도서관/독서실 등, 문화공간으로 고궁/박물관, 음악회, 세종문화회관, 씨클름, 해외유적지, 국내유적지, 취미교실, 전시장 등, 오락공간으로 만화가게, 성인오락실, 여가시설 등, 체육공간으로 롤러스케이팅장, 테니스장, 스포츠센터, 볼링장, 요트장, 골프장, 운동장, 탁구장, 스케이트장,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승마장 등, 종교공간으로 교회/성당/절 등, 유희공간으로 포장마차 등, 편익공간으로 63빌딩, 백화점/쇼

핑센터, 목욕탕, 음식점, 부패, 서점, 공항, 빵집/제과점 등, 시내개방공간으로 대학로, 여의도 광장, 시내거리 등, 숙박공간으로 여관, 호텔, 야영장 등, 자연공간으로 무인도, 고향, 해저, 시골/농촌 등, 상상의 공간으로 미래의 세계 등, 해외공간으로 국경지대, 허리우드/브로드웨이 등, 정치경제공간으로 청와대, 국회의사당, 연회동, 데모장소, 땅굴, 고문실, 산업시찰 등, 기타공간으로 고아원, 연예인 집, 창녀촌, 군대 등이 나왔다.

2) 공간선호동기 목록

(preferred motive repertoire)

상기한 선호공간들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지를 묻는 설문에 대한 자유회상식 응답에서, 청소년들이 생활공간을 선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추구하는 동기 유형으로 드러난 것은 자극추구동기로서 '새로운 경험추구, 관광'등의 자극추구 동기 목록들에 대한 회상 응답수가 전체 응답수의 32%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많이 회상된 동기유형은 평은 휴식동기(16%)였고 다음으로 유희동기(15%), 실용성동기(10%), 친애동기(9%), 기타동기(8%), 성취동기(7%), 자연추구동기(2%)등의 순으로 총 8개 유형, 52조의 동기목록들이 회상되었다.

청소년들이 이러한 동기들을 추구하는 정도에 따라 구분하면,

"많이 추구"(전체 응답자의 31% 이상)하는 동기는 평은 휴식동기로 스트레스 해소 기분전환, 실용성동기로 '비싸서 못 갔으므로', 유희동기로 '재미있어서' 등이 있다.

"조금추구"(6~10%)하는 동기로는 자극추구동기로 '금지된 것이어서, 체력증진을 위해서', 자연주의 동기로 '경치가 좋아서', 평은/휴식동기로 '분위기가 좋아서, 자유로워서', 실용성동기로 '시간없어 못 갔으므로, 먹고 싶어서', 유희동기로 '좋아서, 즐기려고', 기타로 '시설이 부족해서' 등이 있다.

"매우 조금 추구"(5% 이하)하는 동기로는, 성취동기로 '정복감을 느끼므로, 대학생이 되고 싶어서,

장래희망이어서, 남들처럼 잘하려고’, 친애동기로 ‘사람과 접할 수 있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청소년 전용장소가 많아서, 남들이 다 가니까, 친척이 보고 싶어서’, 자극추구동기로 ‘취미가 있어서, 춤을 추기 위해, 어른의 세계를 알려고’, 평온 휴식동기로 ‘고향이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 생각하고 싶어서, 고민해결에 도움을 얻기 위해, 삶, 고통을 나타내므로’, 실용성동기로 ‘술 담배를 할 수 있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물건을 사기 위해, 도움을 주기 때문에’, 기타동기로 ‘정의감 때문에, 정정당당히 하고 싶어서, 남들이 좋다고 해서, 너무 멀어 못 갔으므로, 통일을 바라니까, 최고이기 때문에’ 등이 있다.

학생청소년집단과 근로청소년집단을 비교해 보면, 두 집단의 공간선호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기저동기로는 ‘호기심,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 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그 외에도 ‘재미있어서, 스트레스해소/기분전환 위해, 관심/흥미있어서, 관광하러, 이성을 만나러, 친구를 만나러, 새 지식/기술습득을 위해, 직접체험/관찰하려고, 비싸서 못 가 봤으므로, 금지 되는 곳이라서, 체력증진을 위해, 경치가 좋아서, 휴식하기 위해’ 등이 포함된다.

두 집단 간의 상이한 점은 학생청소년이 ‘공연물 감상, 우리것을 알기위해서, 자유롭고 싶어서’ 등 긍정적인 심리내적 요인에 기인한 동기에 의해 특정 공간을 선호하는데 반해, 근로청소년은 ‘비싸서 못 가 봤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못 가 봤기 때문에, 시설이 부족하여 못 가 봤기 때문에’ 등 부정적인 외부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 동기에 의해 공간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근로청소년을 비롯한 학생외 청소년들은 사회경제적 환경 뿐만 아니라 물리적 생활환경에서도 학생청소년에 비해 결핍된 경험상태에 있음을 인식하여, 청소년전용공간개발에 있어서도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더욱 요청되는 바이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도 청소년 공간개발에 관한 이와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있는 것이다.

(3) 청소년의 여가공간 접촉실태

청소년들이 학교(또는 직장)생활 이외의 여가시간에 주로 많이 이용한다고 언급되어 오고 있는 24개의 근린 여가시설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촉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시설의 개발 및 운영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조사된 여가시설들을 공간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학습공간으로 독서실/도서관, 어학실, 컴퓨터 교육실 등, 문화공간으로 영화관/소극장, 취미교실, 고궁/박물관 등, 오락공간으로 전자오락실, 만화가게 등, 체육공간으로 스케이트장, 탁구장, 로울러스케이트장, 당구장, 수영장, 농구/배구장, 볼링장, 야구/축구장, 배드민턴, 테니스장 등, 유흥공간으로 음악다방/카페, 디스코장 등, 편의공간으로 분식집, 제과점, 햄버거하우스 등, 개방공간으로 공원 등이 설문에 포함되었다.

각 시설들에 대하여는 시설접촉경험 유무, 접촉빈도, 1회 이용시에 소비된 비용, 이러한 비용수준에 대해 비싸다고 지각하는 정도 등을 응답케 하였다.

1) 여가공간 이용도

남자 청소년집단의 경우, 가장 많이 이용한 경험이 있는 여가공간은 오락공간(83%)이고, 그 다음이 편의공간(80%), 문화공간(63%), 시내 개방공간(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가공간을 공간유형별로 나열해 보면, 학습공간으로 독서실/도서관(74%), 컴퓨터 교육실(13%), 문화공간으로 영화관/소극장(90%), 고궁/박물관(81%), 오락공간으로 전자오락실(93%), 만화가게(73%), 체육공간으로 탁구장(80%), 수영장(72%), 유흥공간으로 음악다방(37%), 편의공간으로 분식집(95%), 제과점/빵집(80%), 개방공간으로 공원(49%) 등이다.

여자청소년집단의 경우, 가장 많이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공간은 개방공간(88%)이고, 그 다음이 편의공간(75%), 문화공간(66%), 오락공간(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가공간을 공간 유형별로 나열하면, 학습공간으로 독서실/도서관(82%), 어학실(13%), 문화공간으로 영화관/소극장(92%), 고궁/박물관(85%), 오락공간으로 만화가게(63%), 전자오락실(49%), 체육공간으로 수영장(54%), 로울러스케이이트장(51%), 유흥공간으로 음악다방/카페(43%), 편의공간으로 분식집(98%), 제과점/빵집(90%), 개방공간으로 공원(88%) 등이다.

2) 여가공간 이용비용 및 비용 적정도

남자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여가공간들에 쓰는 비용 및 이러한 비용수준에 대해 비싸게 지각하는 정도를 살펴보자.

강남지역 학생들은 학습공간으로 어학실(9,600원), 문화공간으로 취미교실(3,500원), 오락공간으로 만화가게(700원), 체육공간으로 볼링장(4,200원), 유흥공간으로 디스코장(7,100원), 편의공간으로 햄버거하우스(1,900원), 개방공간으로 공원(1,600원) 등의 이용비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용비용에 대해 강남지역 남학생들은 대체로 '적당한 편'이라고 지각했다.

그리고 도봉지역 남학생들은 학습공간으로 컴퓨터교육실(4,800원), 문화공간으로 취미교실(5,000원), 오락공간으로 만화가게(500원), 체육공간으로 테니스장(3,400원), 유흥공간으로 디스코장(7,400원), 편의공간으로 햄버거하우스(2,300원), 개방공간으로 공원(1,800원) 등의 이용에 드는 비용이 많았다. 이러한 비용수준에 대해 도봉지역 남학생들은 대체로 '적당한 편'이라고 지각했다.

또한 남자 근로청소년들은 학습공간으로 컴퓨터교육실(4,000원), 문화공간으로 취미교실(5,500원), 오락공간으로 만화가게(1,000원), 체육공간으로 볼링장(5,500원), 유흥공간으로 디스코장(6,800원), 편의공간으로 제과점/빵집(1,900원), 개방공간으로 공원(2,100원) 등의 이용에 드는 비용이 많았다. 이러한 비용수준에 대해 남자근로청소년들은 대체로 '적당한 편'이라고 지각했다.

여자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여가공간들에 드는 비

용과, 이러한 비용수준에 대해 비싸게(싸게) 지각하는 정도를 살펴보자.

청소년집단별로 보면, 강남지역여학생들은 학습공간으로 컴퓨터교육실(4,500원), 문화공간으로 취미교실(6,100원), 오락공간으로 만화가게(700원), 체육공간으로 배드민턴(7,500원), 유흥공간으로 디스코장(6,100원), 편의공간으로 햄버거 하우스(2,200원), 개방공간으로 공원(1,800원) 등의 이용에 드는 비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용수준에 대해 강남지역 여학생들은 대체로 '약간 비싼 편'이라고 지각했다.

그리고 도봉지역 여학생들은 학습공간으로 어학실(4,600원), 문화공간으로 취미교실(5,800원), 오락공간으로 만화가게(500원), 체육공간으로 수영장(3,400원), 유흥공간으로 디스코장(4,900원), 편의공간으로 햄버거하우스(2,000원), 개방공간으로 공원(1,200원) 등의 이용에 드는 비용이 많았다. 이러한 비용수준에 대해 도봉지역 여학생들은 대체로 '적당한 편'이라고 지각했다.

또한 여자 근로청소년들은 학습공간으로 컴퓨터교육실(4,000원), 문화공간으로 영화관/소극장(2,200원), 오락공간으로 만화가게(600원), 체육공간으로 수영장(3,900원), 유흥공간으로 디스코장(5,600원), 편의공간으로 햄버거 하우스(1,800원), 개방공간으로 공원(1,600원) 등의 이용에 드는 비용이 많았다. 이러한 비용수준에 대해 여자 근로청소년들은 대체로 '적당한 편'이라고 지각했다.

(4) 청소년 전용공간 현황분석

청소년들이 유흥가 등 유해한 사회내 공간을 많이 접촉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과소비, 퇴폐풍조의 만연에도 그 원인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뛰놀고 즐기며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즉 청소년 공간이 태부족인 현실이 보다 큰 이유라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청소년 전용공간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청소년 전용공

간의 국내 현황을 살펴보고, 청소년 전용공간과 관련된 기본법규인 청소년 육성법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청소년 전용공간의 설치운영 현황

청소년 전용공간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기본법인 “청소년 육성법”에서는 “청소년 전용시설”에 해당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회관(학생회관, 근로청소년회관 포함), 야영장, 심신수련장, 자연학습원, 학생교육원, 학생과학관, 학생극장, 유스호텔, 청소년 오락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상기한 청소년 전용시설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설치 및 운영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단, 시설명의 개념규정이 모호한 일반적 명칭을 사용한 “청소년 오락시설”과 현재까지 제대로 설치운영되고 있지 않은 “학생극장”은 이번 분석에서 제외된다.

① 시설분포의 지역적 불균형

청소년 야외수련시설은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기보다는 서울 경기 지역과 충청도 그리고 경남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표 1). 입지상으로는 산악에 위치한 것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도시 근교에, 해안지역 순으로 위치하고 있다. 이는 산악이 가진 자연경관상의 강점이 입지선정상의 중요한 고려사항이 됨을 뜻하며 도시 근교에 분

포하고 있는 것은 이용대상자의 편의성이 고려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한국청소년연구원, 1989).

② 시설관리 주체의 분산

청소년 전용시설들은 최근에 청소년 전용으로 건립 혹은 개발중인 시설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공원이나 관광시설, 혹은 학생교육의 일환으로 기건립된 시설들을 1987년 11월 제정, 공포된 청소년 육성법에 의거하여 “청소년 전용시설”로 지정되는 것으로 명문화해 놓은 정도에 그치고 있을 뿐, 실제로 행정 감독 및 지원을 담당하는 소관부처가 분산되어 있고 유형별 최소 기준치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표 2).

<표 2> 청소년 시설의 관리주체

시설유형	관 리 주 체	
야영장	국립공원내	건설부
	관광지내	건설부
	기타지역	교통부
심신수련장	문교부, 내무부, 민간단체	문교부, 민간단체
자연학습원	내무부, 민간단체	
청소년회관	지방자치단체	
학생교육원	문교부	
유스호텔	민간단체, 개인	

자료: 청소년 수련원 건립을 위한 기초조사연구(1989)

③ 시설 및 프로그램의 단순성

<표 1> 청소년 전용시설의 전국 분포 현황

단위: 개(%)

구분	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대구 전남	부산 경북	제주 경남
합계	193 (100)	58 (37)	17 (9)	26 (13)	19 (10)	13 (7)	11 (6)	17 (9)	21 (11)	11 (6)
야영장	68	14	4	14	9	8	5	6	6	2
심신수련장	35	9	5	6	5	0	1	1	6	2
자연학습장	9	1	1	1	1	1	1	1	1	1
청소년회관	43	25	2	1	1	2	2	4	3	3
학생교육원	10	2	1	1	1	0	1	2	1	1
학생과학관	12	2	1	1	1	1	1	2	2	1
유스호텔	16	5	3	3	1	1	0	1	2	1

(자료: 청소년 전용시설 편람(1988))

기존의 청소년 시설들은 세부시설로서 대개 연수 시설, 체력단련시설, 숙박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각 시설마다 그 유형이 비슷하여 시설별 독특성이 없으며, 시설이용의 목적이 주로 옥내활동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교육용 프로그램의 수행에 있기 때문에 이용시설이 단순하며 이용대상자로 하여금 참신한 감을 느끼게 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학생과학관이나 자연학습원의 경우, 연수시설과 기본적인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정도이고 프로그램의 독자성도 결여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청소년시설은 이용자(target market)의 프로그램 및 시설 선호도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없이 고답적인 교육목적과 프로그램 내용에 의존하여 시설이 설치 운영됨으로써 소기의 교육적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며 또한 효율적으로 활용되지도 못하고 있다(한국청소년연구원, 1989).

④ 시설 수용능력의 절대부족

청소년 전용 시설의 수요-공급 상황을 양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시설수요충족율'을 산출하였다(표 3).

첫번째, '시설당 평균연간수용능력(A)'은 '시설 평균수용능력'에 연간일수(365일)을 곱한 것이고,

두 번째, '시설당 평균 수요(B)'는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 13,802,955명(1985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결과)이 야영장, 심신수련장 등 시설유형 7종 각각에 대해 1년에 1회씩 이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산출되는 시설당 잠재수요로서, 이 값은 전체청소년 인구수를 시설유형별 총 시설수로 나눈 것이다.

끝으로, '시설수요충족율(A/B)'은 전체 청소년이 각 시설유형별로 1개소씩, 즉 7개 시설유형에 대해 1년에 1일씩 이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시설당 평균 연간 수용능력(A)이 잠재적 수요(B)를 충족시키는 백분율이다.

시설유형별 시설수요충족율을 보면, 야영장 122%, 심신수련장 41%, 자연학습원 6%, 청소년회관 70%, 학생교육원 6%, 학생과학관 16%, 유스호스텔 20% 등으로 산출된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청소년전용시설 중 야영장만이 유일하게 100%가 넘는 수요충족율(122%)을 보이고 있으며, 자연학습원, 학생교육원은 극히 낮은 수요충족율(6%)을 보인다. 이러한 시설들이 숙박을 요하는 시설임을 감안한다면, 실제의 시설수요충족율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

숙박시설인 경우, 2박3일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들 시설의 수요충족율은 1/3로 감소된다. 즉, 숙박시설에 속하는 야영장 41%, 심신수련장 14%, 유스호스텔 7%, 자연학습원 2%, 학생교육원 2%에 불과할 뿐이다.

이상의 추산에 의해 대강의 시설 수요-공급 관계를 살펴보면, 청소년 전용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 절실히 인식되는 바이다.

⑤ 시설운영의 파행성

청소년 전용시설 특히, 청소년 야외수련시설의 이용기간이 주로 특정계절에 한정되어 있으며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이용요금의 고가책정이 곤란하다는 등의 요인들에 기인해서 수지운

〈표 3〉 청소년 시설 유형별 수요충족율

구 분	야영장	심신수련장	자연학습원	청소년회관	청소년교육원	학생과학관	유스호스텔
시설당 평균 일시수용능력(명)	680	447	261	617	225	502	466
시설당 평균 연간수용능력(A)	247,877	163,259	95,305	225,052	82,052	183,290	170,250
시설당 평균수요 (B)	203,000	394,000	1,534,000	321,000	1,380,000	1,150,000	863,000
시설수요충족율 (A/B)	122%	6%	70%	6%	16%	20%	

영상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민간시설인 경우에는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결국 ‘청소년 전용시설’에 해당하는 이름을 내걸고서 성인이나 기업체 연수를 수용하는 변태영업을 하게 되어 나중에는 청소년 이용자보다는 성인고객에게 더 매력을 느끼는 시설운업을 하게 된다(예 : S 유스호스텔의 경우, 연간 이용자 중 청소년 10%, 기업체 연수 90%).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시설의 경우는 이러한 영업형태는 없으나, 시설 모형이 획일적이고 시설 보완 및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순발력이 부족하며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근무태도 및 경영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일부 상업시설의 경우는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용료가 비쌀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내용도 교육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관리직원의 극소화로 이용자에게 무성의하거나 불편을 주는 사례가 많으며, 시설 보수 및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등의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관심과 열의도 부족해서 청소년 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원래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에는 특정 시설을 선정해서 자체 학생들을 인솔해 왔다고 해서 일부 교사에게 영업총액의 일정비율을 리베이트(rebate)로서 요구하거나 수련활동 전후에 시설운영자가 먼저 해당 학교장 또는 학생수련활동 책임교사에게 물량공세로비활동을 함으로써, 특정시설의 저급 서비스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시설을 선정, 활용하도록 교사들을 대상으로 고객유치작전을 쓰고 있다고 한다(한국청소년연구원, 1989). 일부 교사들이 이러한 변태영업에 영합하는 그 만큼, 우리 청소년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독소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 또한 “참교육”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교육현장의 문제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청소년 전용시설들이 청소년의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사회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설

치기준, 운영방식, 지도자의 자격 및 교육훈련 등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통제 및 지원이 없이 각 시설이 독자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교육내용 및 제반 서비스의 질적 문제에 대한 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정책 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 조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청소년 육성법 분석

청소년 시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청소년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청소년 시설이라 함은 학교 시설외에 청소년의 심신 단련과정서 계발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청소년 전용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로 나누어,

① 청소년 전용시설 : 청소년회관(학생회관, 근로청소년회관을 포함한다), 야영장, 심신수련장, 자연학습원, 학생교육원, 학생과학관, 학생극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오락시설 기타 청소년의 전용되는 시설로서 체육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

② 청소년 이용시설 :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등), 공공도서관, 과학관, 공연장 및 공원 기타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체육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소년 전용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이 개념상 어떻게 다른 것인지, 청소년 전용시설은 청소년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것인지, 성인을 위한 심신수련장, 자연학습원 등도 “심신수련장”, “자연학습원”이란 명칭만 사용하고 있으면 청소년 전용시설인지,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운동장, 체육관, 박물관, 공원 등을 “청소년시설”이라 규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등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다만, 법 제12조 2항은 “청소년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령 제17조

제1항은 “신고하여야 할 시설은 청소년 시설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청소년 전용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을 구분하는 의의를 발견할 수 있으나, 동 조항 단서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청소년 전용시설은 이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서 청소년 전용시설에 대한 신고의무조항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법 제12조 제3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절차규정이 없다.

한편, 법 제14조는 청소년시설(청소년이용시설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되나 유지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고, 사용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대부분의 수영장, 공연장 등이 영리목적의 시설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현실과도 동떨어진 규정이다.

따라서 청소년 전용공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청소년 전용공간의 양적 확충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는 정부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대적이고도 적극적인 행,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함은 물론, 기업체 등 민간의 참여 유도 및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각종 관련 법규의 정비가 함께 요망된다.

결론 및 제언

(1) 환경-발달심리학 (environmental-developmental psychology)의 연구 방향

개인이 환경에서 지각하는 지지성을 높이는 또는 낮게 하는 물리적 환경의 속성(property)을 확인하는 것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매일 경험하는 생활 환경들—학교, 직장, 등—중에서 많은 환경들이 개

인의 행동에 대해 제약들을 가하고 있는데, 사실로 그러한 제약들 전부가 그 환경의 기능상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불필요하고 과하게 개인의 자발적 행동을 제약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면, 감수성, 융통성, 효율성 등 심리적 기능이 저하되고, 이러한 환경에 만성적으로 장기간 노출되어 있으면 건강 및 복지상의 문제가 초래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후에 치료적 대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개인 자신의 대응능력을 사전에 개발시켜 주는 것이 중국에는 보다 비용절감적인 방법일 뿐 아니라 보다 인간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청소년의 공간접촉경험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공간접촉과 관련된 기저의 동기적 측면도 함께 분석해야지만, 향후 개발되는 각종 청소년 전용공간들이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건전발달을 촉진하는 유용한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전용공간의 개념 또는 기능 정립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관점을 갖고 임할 경우, 학습시설, 여가시설 등 각종 청소년 전용공간의 개발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제공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공간에서 청소년의 자아성취욕구를 충족시켜 주거나 일상생활의 압력에서 잠시 벗어나는 정신적 안식을 주거나 마음껏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등 청소년의 심리복지적 (psychological well-being)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후속 연구들에서 제기해야 할 연구 물음들은 다음과 같다.

○ 아동이나 청소년에게서 중요하게 생각되거나 개념화된 장소들에서는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며 그 장소들은 어떤 환경 욕구(environmental need)를 제공하여 주는가?

○ 기존 복지공간이나 장소들이 아동이나 청소년의 환경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는가?

○ 아동이나 청소년의 복지와 건전한 성장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생활공간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가? 잠재적 생활공간의 구성에 고려하여야 할 요인은 무엇인가?

(2) 청소년 전용시설에 대한 제도적 지원체제

청소년 시설의 건전 육성을 위한 법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특히 공익성 청소년 전용시설에 대한 각종 혜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청소년 이용자가 최소한의 경제적 부담으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무엇보다도 요청되고 있다.

1) 법적 지원체제

○ 청소년 육성법의 개정보완

— 청소년 시설을 전용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함은 무의미하므로 “청소년 전용시설”의 한 가지 유형만을 두어 그 범위를 축소함과 아울러 각 시설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할 것이며,

— “청소년 전용시설”에 대하여는 정부(체육부)의 철저한 감독을 받게하는 반면 과감한 지원 규정을 신설할 것이 요망된다.

○ 관련 법규의 검토

— 청소년 육성법의 개정방향 설정과 아울러 그에 따른 각종 관련 법규, 예컨대 국토이용관리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특정지역 종합계획법, 특정지역 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연공원법, 관광진흥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하천법, 환경보존법, 수도법, 건축법,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시설보호법, 공유수면관리법, 국민체육진흥법, 토지수용법, 조세감면규제법 등의 법률에 대한 연구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행정적, 재정적 지원체제

○ 신규시설 건립 및 기존시설 보완시에 거쳐야 하는 행정적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간소화하여 청소년시설 설립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 공익성 청소년시설에 대한 수도, 전기, 전화 등 각종 공공요금의 할인혜택 및 조세감면 혜택을 청소년 시설에도 적용토록 함으로써, 시설운영 경비를 절감케 하는 등의 행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청소년 시설의 신규건립 및 보완시에 공익성

청소년 시설에 한해 청소년 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투자액의 일정비율을 융자해 주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사회과학 연구소(1985). 청소년 의식구조 조사. 서울 : 사회과학 연구소.
- 이명숙(1988). 청소년기의 특성과 폭력문제.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편). 쉽게 아물지않는 상처. 서울 :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 이춘재 외(1988). 청년심리학.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 체육부(1988). 청소년전용시설 편람. 서울 : 체육부.
- 한국청소년연구원(1989). 청소년수련원 건립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 Bunting, & Cousins (1985). Environmental Dispositions Among School Age Children: A Preliminary Investigation. *Environment and Behavior*, Vol.17. No.6, 725-768
- Craik, K.H., McKechnie, G.E.(1977). Personality and the Environment. *Environment and Behavior*, Vol. 9, No.2, 155-168
- Kaplan,S.(1983). A model of Person-Environment Compatibility. *Environment and Behavior*, Vol.15, No.3, 311-322.
- Kaplan,R.(1977). Patterns of Environmental Preference. *Environment and Behavior*, Vol.9.No.2, 195-216
- Little, B.R.(1983). Personal Projects: A Rationale and Method for Investigation. *Enrionment and Behavior*, Vol.15, No. 3, 273-309.
- Michelson, W. (1977). From Congruence to Antecedent Conditions: A Search jfor the Basis of Environmental Improvment. in Stokols, D.(ed.). *Perspectives on Envinonment and Behavior*. New York: Plenum.
- McKechnie, G.E.(1977). The Environmental Response Inventory In Application. *Environ-*

ment and Behavior. Vol. 9, No. 2,
255-276.

Stokols, D.(1977). Origins and Directions of environment behavior research. in Stokols, D.(ed.). *Perspectives on Environment and*

Behavior. New York: Plenum.

Stokols,D.(1983). Theoretical Direction of Environment and Behavior Research. *Environment and Behavior*. Vol. 15, No. 3, 259-272.

韓國心理學會誌:發達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989. Vol. 2, No. 1, 78~92

Psycho-Social Understandings for Youth Life Spaces

Lee, Myung Sook & Lee, JaeChang

Korea Institute for Youth and Children Yonsei University

It is the goal of this research to enrich the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vironmental factors and human factors, and ultimately to create appropriate environment for youth's development. As a preliminary attempt to achieve this goal, 600 girls and boys (13-15 years) were asked to write the places which they consider meaningful and the environmental needs which those pieces fulfil. Specifically, it is required to free-recall the repertoire of life spaces and space-related subjective meaning, which have been experienced and would prefer to experience. Additionally it is required to check the usage frequency, cost and problems of youth leisure facilities. Consequentially, based on those data, the guidelines for amending the "Act for capacity of Youth Development" and fostering the useful youth leisure facilities are proposed.